

보안투자, 매출액의 1%도 못미쳐… 예견된 개인정보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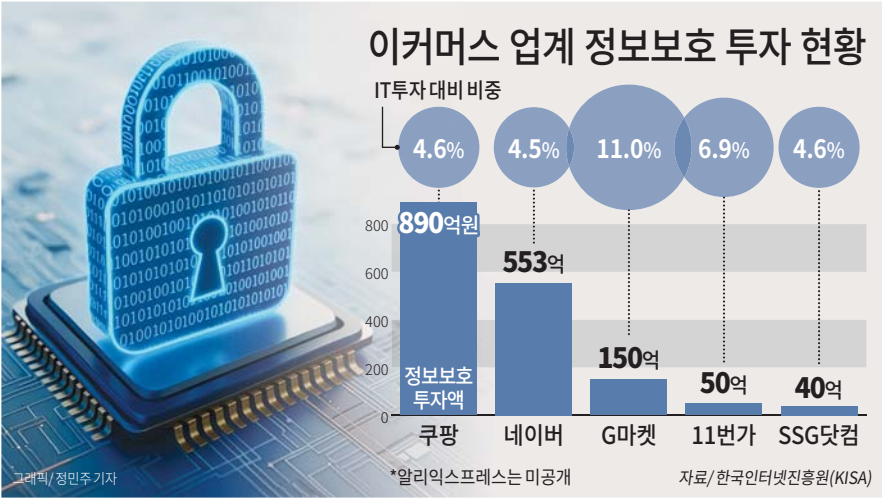
이커머스 정보보호 부실

IT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전 기업 평균 6.29%, 쿠팡 4.6% 매출 대비 0.22% 불과 업계최저 “자율공시 아닌 법적 강제 절실”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출액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큰 충격을 안긴 쿠팡의 경우 매출액 대비 0.22%만 정보보안 투자로 이어지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보안 투자 비중을 의무화 하고, 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정보보호를 경영 최우선 순위에 뒀아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메트로미디어가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시기업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평균 비율은 6.29%로 집계됐다. 3년째 6%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수치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쿠팡은 지난해 정보보호에 89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을 투자했다고 공시했지만, 이를 전체 IT 예산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4.6%에 그친다. 이는 국내 기업 평균(6.29%)보다 1.6%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네이버 역시 552억원을 투자했으나 IT 예산 대비 비중은 4.5%에 머물렀다. 11번가는 50억 원을 투자해 IT 예산 대비 6.9%를 기록하며 평균을 상회했으나, SSG닷컴은 40억원 투자가 전부였으며 비중 또한 3.1%에 불과해 평균의 절

반 수준에 그쳤다.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고도 “덩치에 비해 보안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실제 규모를 보여주는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분석 결과 11번가 0.90%, 네이버 0.51%, SSG닷컴 0.30%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38조2988억원을 기록한 쿠팡은 단 0.22%만이 정보보안 재투자로 이어지며 주요 이커머스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권고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박준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들을 분석해보면 통상적으로 매출액의 0.5%는 정보보안에 투자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온다”며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역시 최소 10%는 돼야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기준에 따르면 쿠팡과 SSG닷컴 등은 매출액과 IT 예산 비중 모두에서 낙제점인 셈이다. 이커머스 중 G마켓은 150억원을 투자한 가운데 매출액 대비 1.42%, IT 예산 대비 11%를 투자하며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조한 투자의 원인으로 ‘법적 강제성 부재’를 꼽는다. 과거 금융권에는 ‘5·5·7 규정’이 존재했다. 이는 전체 인력의 5%를 IT 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 인력으로, 전체 IT 예산의 7%를 정보보호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이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0년 규정 효력이 만료되면서 현재는 강제성 없는 자율 공시 및 가이

드라인으로 전환됐다.

해외 주요국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럽연합(EU)은 ‘NIS2 지침’을 통해 공급망 보안을 의무화하고, 법 위반 시 CEO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자율 공시 체계를 넘어선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전체 매출액에 연동한 과징금 제도(최대 3%)와 보안비 최소 비율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투자 축소를 기업의 리스크로 전환하고, 사고 발생 시 CEO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정보보호를 경영 최우선 순위로 강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IT 예산의 10%까지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무차별 ‘부채성 자금’ 신용리스크 우려

신종자본증권 발행 급증

10대 기업 부채성 자금 24.3조 SK 13.5조, 한화 3.5조 규모 등 “회사채 금리 상승, 여건악화 영향”

신종자본증권이나 추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무차별 발행한 부채성 자본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제계와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10대 대기업 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HD현대, LG, CJ, 한화, 롯데, 신세계)이 조달한 부채성 자금 규모는 2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3대 그룹 중에는 SK그룹이 유일하다. SK그룹은 13조5000억원 규모의 부채성 자금을 조달했다. 그룹의 리밸런싱 추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주사인 SK㈜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상반기 기준 634곳으로 집계됐다.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 말(716곳) 대비 82곳 감소한 규모다. 최태원 SK 회장은 8월 2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천 포럼에서 “운영 개선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인공지능(AI) 세상이 왔으나 기초 체력이 없다면 그 위에 쌓아 올린 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화(3조5000억원), 롯데(3조1000억원), CJ(2조4000억원), 신세계(1조1000억원) 등도 1~3조원대 부채성 자금을 조달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기업들의 부채성 자금 조달은 늘고 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575만주(2.46%)를 PRS 방식으로 2조원에 처분했다. 3년 뒤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기준가격(34만7500원)보다 내리면 LG화학이 손실을 보전해 주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LG화학이 차익을 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주가 47만대가 3년 뒤에도 유지되면, LG화학은 7000억원대 차익을 추가로 정산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흥행 조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첫 선

펼치면 10형 대화면, 접으면 6.5형 359만원 고가에도 5분만에 완판 기술 완성도 앞세워 글로벌 존재감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국내에 선보이며 트라이폴드폰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중국 업체들이 앞서 관련 시장에 진입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초기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기술 완성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내 존재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갤럭시 Z트라이폴드’를 국내 첫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초기 물량이 수천 대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359만 400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새로운 폼팩터를 체험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IT)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강남 매장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갤럭시 Z트라이폴드 판매를 시작하자 온라인에는 개시 5분 만에 모든 제품이 팔려 나간 것으로 전해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화면. /차현정 기자

졌다. 매장에서도 준비된 물량이 개점 직후 모두 판매됐다. 추가 물량 입고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 주 초에는 재고 품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갤럭시 Z폴드 7’과 같은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 후면은 최대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특히 트라이폴딩 구조에 ‘아머 플렉스 힌지’를 탑재해 얇고 내구성이 뛰어난 티타늄 소재 힌지를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

중국 기업들도 3단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메이트 XT’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관련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샤오미도 최근 세계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데이터 베이스에 모델번호 ‘2608BPX34C’를 새로 등록했다. 이 기기는 샤오미의 첫 3단 폴더블폰 ‘샤오미 믹스 트라이폴드’일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내년 3분기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은 탄탄한 내수 시장과 자체 부품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폴더블 제품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은 중국 업체의 가격·속도 중심 공세에 대응해 완성도와 품질을 앞세운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강민석 삼성전자 MX사업부 스마트 폰PP팀 부사장은 지난 2일 열린 트라이폴드 미디어 행사에서 중국 경쟁사들이 앞서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상황과 관련해 완성도를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거둬 설명…“오해 없이 평가됐으면”
▲국힘 “李대통령, 한닫고기 언급은 기관장 면박 주기 일한” /사진 뉴스스

▲한동훈 “李, 본인이 ‘환빠’일수도…대통령, 자기 취향 보이는 자리 아냐”
▲공정위 퇴직자들, 연봉 3배 올려 대형로펌行…“로비창구” 우려”

▲기재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반드시 필요”